

통신산업과 멀티미디어



김 전 중
(멀티미디어협회 위원장/ 삼성전자(주) 전무이사)

세 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세션은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최근 멀티미디어나 초고속정보통신망 만큼 많이 이야기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안에 편안히 앉아서 모든 종류의 상품을 살 수 있는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가 당면해 있는 문제중의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무엇을 의미하는가? 멀티플 미디어? 또는 아마도 멀티플렉스드 미디어를 말하는 것인가? 또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인가? 멀티미디어는 여러가지 미디어의 유형과 통신수단의 복합을 통해 생겨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멀티미디어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화,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에서 이미 디지털 기술을 써 왔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는 21세기를 여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다른말로 하면, 멀티미디어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 더 큰 주파수 폭을 원하면 원할수록, 통신네트워크는 점점 더 중요해 집니다. 동 케이블, 광케이블, 셀룰러 네트워크, 위성 등 여러 망을 통한 음성, 데이터, 팩스, 영상 등을 통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가장 유연하고 폭 넓은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통신과 멀티미디어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도구와 표준의 발전이야말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변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멀티미디어의 발전은 주로 Stand-alone 기기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CD-ROM 기술, 디지털 데이터 압축 기술, 3D그래픽스, 이러한 기술의 발전들이 멀티미디어 산업의 근간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통합은 이러한 경향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통신 네트워크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많은 디지털 데이터의 실시간 전달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는 현재 stand-alone형 멀티미디어 기기에서만 실행이 가능한 타이틀이나 애플리케이션들이 중앙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되고 사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멀티미디어와 통신의 결합이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형 TV, On-Demand 서비스, 홈 쇼핑, 전자신문 등은 이제 상업화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원격 진료, 원격 교육, 화상회의등도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의 세계에서 기업간의 결합이나 국가사이의 협정들은 기술간, 기업간, 국가간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고 이같은 경향은 문화적, 법적, 정치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 국가에서의 멀티미디어 개발 현황에 대해 토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와 같이 국경없는 세계에서는 한 국가에서의 기술발전은 즉시 다른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World Wide Web 서비스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Web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 있던 간에 위치에 관계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Web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표준 소프트웨어와 규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티미디어 관점에서 보면,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제작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어떠한 규격이나 표준등에 맞추는데 힘을 쏟게 해서는 안됩니다. 담겨질 내용을 제작하는데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통신분야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시대의 핵심이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시아가 멀지 않은 장래에 멀티미디어 시대의 중심지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해 주실 연사님들께 미리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세미나를 있게해준 조직위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

(출처 : 「아시아 정보통신교류(ATIE)세미나」 인사말중에서, 1995. 4. 5)